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달빛에 아른거리는 구름처럼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적 재분배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의 재분배이다. 미국의 정치철학 교수 ㉠존 롤스는 사회적 재분배를 강력하게 찬성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는 사고실험*인 원초적 입장이다. 원초적 입장은 사회적 지위, 부, 명예, 권력 등의 사회적 기본가치들이 사회 전반에 분배되지 않은 가상의 상황이다. 원초적 입장 속 모든 참가자는 자신만의 이익이 유일한 고려 대상인 합리적 이기주의자이며,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나 가정 배경을 모르는 무지의 장막을 쓰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사회적 기본가치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합의하기 때문에, 롤스는 사회적 재분배가 시행된 이후에 구성원 각각이 자신에게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주장한다. 즉 본인이 분배의 최소수혜자가 되었을 때를 두려워하는 심리가 합의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 회피적 선택의 결과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존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 충족을 그 방법으로 제시한다. 우선 정의의 두 원칙 중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정치적 자유권, 평등권을 포함하는 모든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자유로운 투표권의 행사나 적법한 상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행위 등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2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지위와 직책의 기회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할당되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 총합이 클수록 정의로움을 그 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다. 존 롤스는 제1원칙과 제2원칙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현실에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정의 구현을 지지하지 않는 학자들도 존재했다. 미국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소유권리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분배를 반대했다. 노직에게는 한 개인의 정당한 취득이 그의 의지에 따른 양도나 이전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이나, 취득, 양도, 이전의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인 것이다. 노직은 이를 말미암아 재분배가 국가에 의한 강제 노동이며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두 학자의 사회적 재분배에 대한 의견은 합의점 도달에 실패하여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사회 정의 추구에 대한 학문적 고찰에 대한 후속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사고실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가상으로 실행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

1.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 윤리적 고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 ②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윤리적 기준의 역사적 흐름을 서술한다.
- ③ 사회적 개념을 두고 대립하는 두 의견을 제시하고 의의를 밝힌다.
- ④ 사회적 현상의 해결책에 대한 역효과와 대비책을 제시한다.
- ⑤ 실험을 통해 반박된 가설을 재반박하며 타당성을 제고한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버트 노직은 개인이 노력해 취득한 모든 것을 긍정한다.
- ② 로버트 노직은 모든 취득과 양도에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존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참가자들이 선택 시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존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상황을 현실에서 실현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⑤ 존 롤스는 재산을 모을 권리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윗글과 <보기1>을 읽고 반응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2>에서 있는 대로 것은? [3점]

<보 기1>

미국의 철학자 마이클 왈처는 복합평등론을 주장했다. 복합평등론은 각 가치를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분야마다 별도의 기준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상품과 공직은 각각 자유 교환의 원칙, 기회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분배한다. 한편 공동체주의자였던 그는 공동체적 맥락이 배제된 가상의 상황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 기2>

ㄱ. 마이클 왈처는 존 롤스가 원초적 입장의 모든 개인을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가정한 점을 비판하겠군.
 ㄴ. 로버트 노직이 개인의 자유의사를 통한 거래를 중시한다는 점은 마이클 왈처의 복합평등론과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군.
 ㄷ. 존 롤스가 제시한 제2원칙은 마이클 왈처의 복합평등론의 공직 분야의 분배 기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군.
 ㄹ. 존 롤스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사회 분야의 모든 권리를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마이클 왈처의 복합평등론과 비슷한 맥락에 있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4. 다음은 가상의 세 국가 A, B, C 그리고 국민 갑, 을, 병에 관한 표이며 각 칸에는 개인이 각 사회에서 받는 재화의 양이 적혀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병이 최소 수혜자여야 할 때, ㉠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은 이미 모두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3점]

	갑	을	병
A	10	13	?
B	11	12	10
C	?	14	13

- ① A국에서 병이 받는 재화의 양이 10 초과이면 병은 최소수혜자가 아니므로 가장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② B국에서 재화의 거의 균등한 분배가 일어났어도 병이 B국을 가장 정의로운 사회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③ A국과 B국만을 비교할 때, A국에서 병이 받는 재화의 양에 상관없이 B국이 더 정의로운 사회이다.
 ④ C국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라면 갑은 A국, B국에서 받는 재화보다 더 많은 양의 재화를 받아야 한다.
 ⑤ 갑이 A국과 B국보다 C국에서 받는 재화가 많다면, C국은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5.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시(提示)했다.
 ② 예지(叡智)했다.
 ③ 지각(知覺)했다.
 ④ 상상(想像)했다.
 ⑤ 짐작(斟酌)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양계에 존재하는 천체의 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부터 ㉠이어서왔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지구를 제외한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며 고대의 천체 운동을 설명한 이론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움직이지 않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두고 그 주위를 태양이 돌며, 태양과 지구의 사이에는 달, 수성, 금성의 궤도가 위치한다고 설명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지만 수성과 금성은 <그림>과

<그림>

같이 각각의 주전원의 궤도를 돌며 각 주전원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주원의 궤도를 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전원을 설정한 이유는 역행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지구의 관측자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행성의 연주운동을 관찰하면 행성은 배경별을 ㉣기준으로 하루에 조금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행운동을 한다. 이때 원래 방향과 다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를 역행운동이라고 한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행성이 주원을 기준으로 주전원의 안쪽을 돌 때 지구의 관측자가 역행운동을 관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의 궤도 밖에는 화성, 목성, 토성의 궤도가 존재하며, 이들 역시 역행운동이 관측된다.

한편 하루마다 해가 뜨고 지는 일주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천구 개념을 사용했다. 천구란 관측자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이 무한대인 가상의 구체(毬體)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우주의 모든 천체가 천구의 안쪽에 붙어있다고 가정된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남쪽 하늘을 기준으로 천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돈다고 설명했다.

15~16세기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고대의 아리스타르코스에 이어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한다는 ㉤지동설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며 더욱 정교해진 천동설을 이길 수는 없었다. 이후 티코 브라헤가 천동설과 지동설을 모두 받아들인 ㉥절충설을 주장하였는데 움직이지 않는 지구를 달과 태양이 공전하지만 나머지 행성들은 태양을 공전한다는 내용이였다. 이는 주전원 없이 행성들의 태양 공전 속도의 차이로 역행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기독교의 교리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요하네스 케플러의 등장으로 그 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천체를 관찰했는데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었다. 금성은 연주운동을 하며 위상이 변하는데, 만약 금성이 지구와 태양의 사이에만 있다면 절대로 동그란 위상이 관측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동그란 위상이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목성에 위성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기존의 천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천동설이 크게 흔들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급부상했으며 케플러가 천체의 운행 원칙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이후 지동설은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프톨레마이오스는 천구가 회전할 때 태양계 내의 천체들도 같이 회전한다고 보았다.
- ② 프톨레마이오스는 행성이 주원을 기준으로 주전원의 인쪽을 돈다면 달, 수성, 금성에서 역행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 ③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 ④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 ⑤ 천동설은 케플러가 천체의 운행 원칙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이후에 그 위상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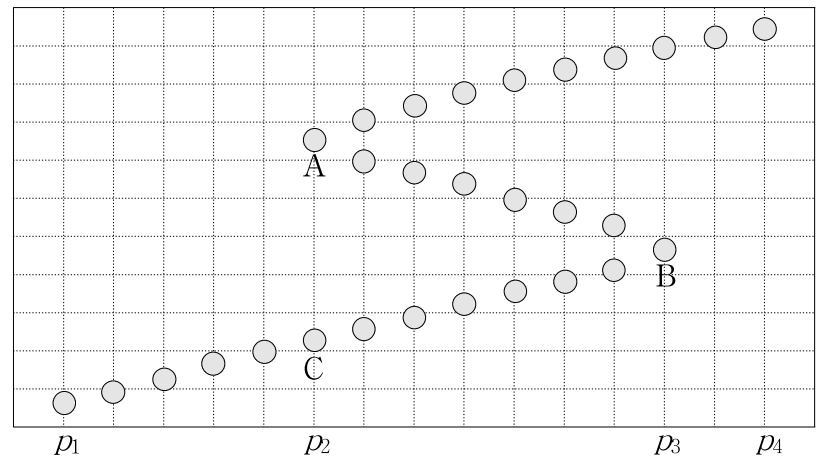
7.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은 ㉡과 달리 천구의 회전으로 일주운동을 설명한다.
- ② ㉠은 ㉡, ㉣과 달리 지구에서 금성의 동그란 위상이 관찰됨을 설명할 수 없다.
- ③ ㉡, ㉣은 ㉠과 달리 주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은 ㉠, ㉡과 달리 행성의 태양 공전 속도의 차이를 사용해 역행운동을 설명한다.
- ⑤ ㉠, ㉡, ㉣ 모두 지구를 공전하는 천체가 최소 하나는 존재한다.

8. 윗글을 바탕으로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목성에 위성이 존재한다면 지구의 위성인 달이 존재하는 것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 ② 목성에 위성이 존재한다면 주전원으로 역행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목성에 위성이 존재한다면 다른 행성의 주전원과 궤도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 ④ 모든 행성이 천구의 인쪽에 붙어있다는 논리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 ⑤ 모든 행성이 지구를 공전한다는 논리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9. 다음은 지구의 관측자가 1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남쪽 하늘을 기준으로 한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날짜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이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한 칸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며, 행성은 등속으로 이동한다.) [3점]



- ① D1에 관찰한 행성은 동쪽, D4에 관찰한 행성은 서쪽에 위치한다.
- ② D4에서부터 행성이 관측되며 D2의 A까지 행성은 순행운동을 한다.
- ③ D2의 A에서부터 D3의 B까지 행성은 동에서 서로 역행운동을 한다.
- ④ D2와 D3 사이에 행성의 순행운동 시간은 역행운동 시간의 2배이다.
- ⑤ 해당 과정을 행성이 거치는 동안 천구는 한 바퀴를 돈다.

10. 문맥상 ㉡~㉣을 대체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수반되어왔다.
- ② ㉢: 쳐다보았을
- ③ ㉣: 중심으로
- ④ ㉣: 제재되지
- ⑤ ㉣: 유지되었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이 올듯하더니 눈은 안 오고 열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운수 좋은 날이었다.

첫 번째에 삼십 전, 두 번째에 오십 전-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매우 유용했다. 칼칼한 목에 술 한 잔도 적실 수 있고 그 보다는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인력거!”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예요.”라고 물었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집을 나올 때 오늘은 일을 나가지 말라던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냐구요?”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 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일 원 오십 전만 주세요.”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기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 본지가 그 얼마만인가!

“일 원 오십 전은 너무 많은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닙니다. 거리로 치면 여기서 엄청 멍니다. 또 이런 힘든 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하고 빙글빙글 웃는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빨리 가요.”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벼웠다. 뛰다가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러짐도 하였지만, 바퀴도 구름다가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이윽고 그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에 가까워졌기 때 문이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프데”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아내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왜이래요, 기차 놓치겠구먼.”

하고 인력거를 탄 학생의 초조한 물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겨주춤 멈춰 있지 않은가.

“예, 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뛰었다. 집이 차차 멀어져 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정거장까지 끌어들 주고 그 깜짝 놀란 일 원 오십 전을 정 말 손에 쥐고는 그 먼 길을 비를 맞아 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로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뻐다. 제 자식뻘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옵시요.”라고 깝듯이 외쳤다.

(중략)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김첨지, 문안 들어갔다 왔구나.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잔 마시자.”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너는 벌써 한 잔한 모양이네. 넌 오늘도 재미가 좋아 보여.” 하고 김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 나인가. 그런데 너 몸이 어찌 물독에 빠진 생쥐 같아. 어서 이리 들어와 말려.”

술집은 훈훈하고 따뜻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열 때 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 김 석쇠에서 빠지듯빠지듯 구워지는 너비아니구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이 너저분하게 늘어 놓인 안주 탁자에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러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한다면 거기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집어 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지만 배가 고프는 그는 일단 분량 많은 빈대떡 두 개를 찢어보기도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주문하였다. 배고픈 배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 비어지며 자꾸 음식을 들이라 하였다. 순식간에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켜고 말았다.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래부터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배 속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쇠에 얹힌 떡 두 개를 송덩송덩 썰어서 불을 불룩거리며 또 곱빼기 두 잔을 부어라 하였다.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며,

“너 또 붓다니, 벌써 우리 네 잔씩 먹었어, 돈이 사십 전이야.” 라고 주의시켰다.

“야, 사십 전이 그렇게 끔찍해?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어.”

“그래 얼마를 벌었는데?”

“삼십 원을 벌었어, 삼십 원을! 이런 쟁쟁맛을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없어. 오늘 돈 산더미 같이 벌었는데.”

“어,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둬.”

“이놈아, 그걸 먹고 취할 내냐, 어서 더 먹어.”

하고는 치삼의 귀를 잡아 치며 취한 이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열다섯 살쯤 돼 보이는 ㉣아이에게로 달려들며 “이놈, 왜 술을 붓지 않아.”

라고 야단을 쳤다. 아이는 회회 웃고 치삼을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다. 주정꾼이 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버럭 내며, “이 나쁜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하자마자 허리춤을 훑듯 훑듯하더니 일 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술 따르는 앞에 펼쩍 집어던졌다.

“야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던져.”

이런 말을 하며 돈을 줍는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위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제 하는 것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들고 더욱 성을 내며,

“봐라 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뺨다구를 꺾어 놓을 놈들 같으니.”

하고 치삼이 주워주는 돈을 받아, “에라 이까짓 돈!”

하면서 돈을 던졌다. 벽에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냄비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짹하고 울었다.

-현진진, 「운수 좋은 날」-

11.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설의 생생함을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특정인물의 시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 ③ 모든 등장인물의 감정을 서술하여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인다.
- ④ 장소의 이동을 통해 등장인물의 동선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등장인물의 과장된 말투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강조한다.

12. 인물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부른 가격에 ㉡은 의문을 품는다.
- ② ㉠은 아내의 존재 때문에 잠깐 일하기를 멈췄지만 ㉡의 말에 다시 시작한다.
- ③ ㉢은 ㉠의 평소와는 다른 씩씩이에 경각심을 준다.
- ④ ㉠은 ㉢이 지었던 웃음의 저의를 알지 못한다.
- ⑤ ㉠이 던진 돈은 ㉢이 주워 다시 ㉠에게 전달되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운수 좋은 날」은 1920년대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의 서울은 기존의 신분제를 대체하는 자본주의적 신분이 새롭게 등장했으며 이러한 자본주의적 질서에 주인공은 순응하며 하루를 여실히 살아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인공은 돈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도 역설적으로 돈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권위를 부각한다.

- ① ‘제 자식뺨’인 ‘학교 학생’에게 ‘김첨지’가 ‘안녕히 다녀오십시오’라고 하며 ‘깍뚝이’ 인사한 것으로 보아 둘의 관계 사이에 자본주의적 질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② 손님이 인력거를 탔을 때 ‘다리가 무거워’짐을 느꼈지만 이내 ‘집이 차차 멀어져 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 신이 나는 모습은 ‘김첨지’가 자본주의 사회에 순응함을 알 수 있군.
- ③ ‘엄청난 돈 액수’를 부르고 ‘빙글빙글 웃는’ 모습에서 ‘김첨지’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에라 이까짓 돈!’을 외치며 돈을 던지는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돈을 홀대하는 모습을 알 수 있군.
- ④ ‘김첨지’가 ‘일 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아이’에게 던지는 장면은 그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며 동시에 자신의 자본주의적 권위를 ‘치삼이’에게 부각함을 알 수 있군.
- ⑤ ‘아이’가 ‘김첨지’의 술을 따르라는 주문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이’가 ‘김첨지’의 자본주의적 신분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괴로운 사람아 괴로운 사람아
옷자락 물결속에서도
가슴속 깊이 돌돌 샘물이 흘러
㉠이 밤을 더붙어 말할 이 없도다.
거리의 소음과 노래 부를 수 없도다.

그런 듯이 냇가에 앉았으니
사랑과 일을 거리에 맡기고

㉡가만히 가만히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 윤동주, 「산골물」-

(나)

㉔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握手)를모르는왼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㉕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㉖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事業)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

또때답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떡섭섭하오

- 이상, 「거울」-

(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이육사, 「청포도」-

14. (가)~(다)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난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색채어가 사용되었다.
- ④ (다)는 (가), (나)와 달리 청자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었다.
- ⑤ (나)는 대구를 활용하여, (다)는 단어의 음절을 임의적으로 늘리면서 시에 리듬감을 더한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에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 윤동주와 이육사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활동한 시인이다. 윤동주가 시에서 부끄러움과 성찰의 정서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 이육사는 극한에 서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를 표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민족의 소원인 독립을 시에 녹여내어 독립운동을 응원하거나 독립운동가들을 위로했다는 점에서 두 시인의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① (가)의 화자가 부르는 괴로운 사람은 시인 자신의 부끄러움이 투영된 존재라고 할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의 마음에 샘물이 흘러 밤을 말할 수 없고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통해 샘물이 화자를 반성하게 한다고 할 수 있군.
- ③ (다)에서 손님이 왔을 때 포도를 따먹고 싶다는 소망을 통해 일제강점기라는 극한에 서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바라보는 시인의 의지를 알 수 있군.
- ④ (다)에서 화자가 아이에게 모시수건을 마련하라는 구절을 통해 시인이 독립운동가들을 응원했음을 알 수 있군.
- ⑤ (가)의 바다와 (다)의 내가 바라는 손님은 민족적 소원인 독립을 상징화한 존재로, 이를 통해 두 시인이 독립운동을 응원했음을 알 수 있군.

1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읽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인 이상은 기존의 언어체계를 파괴하는 기법을 통한 모더니즘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가 쓴 시는 아직까지도 최신식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시인은 거울을 이용하여 거울 밖의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에 존재하는 내면적 자아를 등장시킨다. 시인은 인간의 자기모순에서 오는 자아 분열과 갈등 양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아간의 화해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 ①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언어체계를 파괴하는 기법으로, 그의 시가 최신식이라는 평을 받게 하는 요소이겠군.
- ② 항상 가지고 있는 거울을 통해 자아와 마주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거울을 통해 화자는 내면적 자아를 마주하겠군.
- ③ 거울속의 나에게도 귀가 있으나 나의 말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것으로 보아 자아의 모습에서 인간의 자기모순을 발견할 수 있군.
- ④ 거울속의 내가 악수를 받지 못하는 왼손잡이인 것으로 보아 화자가 자기모순에서 분열한 자아와의 갈등양상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화자는 자아와 자신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내면적 자아를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간의 화해를 도모함을 알 수 있군.

17. (a)~(e)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현재 상황을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있다.
- ② (b): 부정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자포자기 심정이 드러난다.
- ③ (c):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현재상황이 고요함을 나타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d): 사물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기존의 부정적 편견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된다.
- ⑤ (e): 화자가 몰입해야하는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거울 속 나에 몰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한탄이 나타난다.

18.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대상의 부재를 자연물에 비유하여 화자의 외로운 마음을 심화한다.
- ② 긍정적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현재 제시된 부정적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③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기대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낸다.
- ⑤ 의성어를 통해 화자가 청포도를 먹는 모습을 생생히 제시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단지하프모의고사 1회차
정답 및 해설

1	③	2	⑤	3	④	4	⑤	5	①
6	②	7	④	8	⑤	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④	14	④	15	③
16	②	17	①	18	④				

1번.

[정답]

③: 윗글은 사회적 재분배에 대한 대립되는 두 학자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의 견해를 제시하고 마지막 문단에 그 의의를 밝힌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윗글에 전통적 윤리적 고찰, 새로운 의견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윗글에 기대에 따라 변하는 윤리적 기준의 역사적 흐름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윗글에 사회적 현상의 해결책에 대한 역효과와 대비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윗글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적 통념들이 나오지는 않았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2번.

[정답]

⑤: 재산을 모을 권리는 기본권이므로 권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롤스 역시 재산을 모을 권리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로버트 노직은 정당한 노동이 자연물에 투입된 취득인 동시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취득을 정당한 취득이라고 보았으며,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개인이 노력해 취득한 모든 것을 긍정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로버트 노직은 불법적 취득과 양도에만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존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나 가정환경을 모르는 무지의 장막을 쓰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원초적 입장의 참가자들이 현재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존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결과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원초적 입장 자체를 현실에서 실현 하는 것은 아니다.(더군다나 원초적 입장은 이미 사고실험이라고 제시되어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3번

[해설]

ㄱ: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공동체의 맥락(즉,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가상의 상황이다. 마이클 왈처는 공동체의 맥락을 중시하므로 공동체의 맥락이 반영되지 않고 존 롤스가 원초적 입장의 모든 개인을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가장한 점을 비판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다.

ㄴ: 로버트 노직이 개인의 자유의사를 통한 거래를 중시한다는 점은 마이클 왈처의 상품이 자유 교환의 원칙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 맥락이 비슷하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다.

ㄷ: 존 롤스는 제 2원칙 중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마이클 왈처는 공직을 기회의 공정성을 통해 분배한다는 점에서 존 롤스와 마이클 왈처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다.

ㄹ: 마이클 왈처는 다양한 분야의 가치(권리를 포함한)를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존 롤스는 모든 기본권을 반드시 균등분배 해야 함을 강조했다. 존 롤스의 기본권 분배에 대한 입장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둘은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윗글과 <보기1>을 읽고 반응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2>에서 있는 대로 것은 ④번(ㄱ, ㄴ, ㄷ)이다.

4번

[정답]

⑤: 갑이 C국에서 받는 재화의 양에 A국과 B국에서 받는 재화의 양보다 크지만 동시에 병이 C국에서 받는 양보다 작은 경우(즉 12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A국에서 병이 받는 재화의 양이 10일 때 A국에서 갑이 받는 재화의 양과 같으므로 병은 A국에서 최소수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C국에서 병이 받는 재화의 양이 B국에서 받는 재화의 양보다 많으므로 병은 C를 정의로운 사회로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병이 A국에서 10 초과 혹은 10을 받는 경우 병은 최소수혜자가 아니므로 A국은 가장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병이 A국에서 10 미만 받는 경우 병이 최소수혜자이지는 하나 전체 재화의 합이 B국보다 적다. 그러므로 A국과 B국만을 비교할 때 B국이 더 정의로운 사회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갑은 항상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C국에서 받는 재화의 양이 A, B국에서 받는 양보다 적다면 갑은 C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5번

[해설]

①: '생각했다'를 바꿔 쓰기에 '제시했다'가 문맥상 제일 자연스럽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다.

6번.

[정답]

②: 프톨레마이오스는 달이 지구를 공전하지 주전원의 궤도를 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천구의 안쪽 벽면에 우주의 모든 물체가 붙어있다고 보므로 태양계 내의 천체 역시 천구의 안쪽 벽면에 붙어있다고 할 수 있다. 천구의 안쪽 벽면에 붙은 천체들은 천구가 회전할 때 같이 회전하므로 태양계 내의 천체 역시 같이 회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고대의 아리스타르코스는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지동설을 주장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티코 브라헤의 절충설이 주전원을 통해 역행운동을 설명하고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천동설은 주전원을 통해 역행운동을 설명했으므로 지동설이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지동설이 케플러가 천체의 운행원칙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이후에 정설로 받아들여졌으므로 천동설은 케플러 이후에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7번.

[정답]

④: ㉔은 태양계 내 천체들의 공전 속도 차이를 통해 역행운동을 설명했다. 이때 ㉒ 역시 다른 태양계 내 천체들이 태양을 공전한다고 했으므로 ㉒ 역시 공전 속도 차이를 통해 역행운동을 설명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㉑은 부동의 지구를 설정하고 천구의 회전을 통해 일주운동을 설명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다.

구의 회전을 통해 일주운동을 설명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금성의 동그란 위상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지 않을 때, 즉 태양 너머에 있을 때 관찰이 된다. ㉑과 ㉔은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지 않은 순간이 존재하지만 ㉑은 항상 금성의 궤도가 지구와 태양의 궤도 사이에 있으므로 금성의 동그란 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③: ㉑은 주전원을 통해 설명하지만 ㉑과 ㉔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⑤: ㉑, ㉒, ㉔ 모두 달은 지구를 공전한다고 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8번.

[정답]

⑤: 천동설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모든 행성이 지구를 공전한다고 할 수 있다. 목성의 위성이 목성을 공전한다는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논리와 모순된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윗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선지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윗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선지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윗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선지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윗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선지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9번.

[정답]

⑤: 역행운동은 연주운동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일주운동(천구의 회전)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기존에 행성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이므로 A에서 B구간에 역행이 일어난다. 역행은 행성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이므로 A에 가까운 p_1 이 동쪽이고 B에 가까운 p_4 가 서쪽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행성의 관측 결과 행성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므로 서쪽인 p_4 에서 행성이 제일 처음 관측되며 운동 방향이 바뀌는 A까지 행성은 순행운동을 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행성은 p_2 의 A에서부터 p_3 의 B까지 운동 방향을 바꿔 이동하므로 그 구간에서 행성은 역행운동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④: p_2 와 p_3 부분만을 보았을 때 역행운동을 하지 않는 구간이 역행운동을 하는 구간의 2배이므로 그 시간 역시 2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10번

[해설]

②: '바라보았을'을 '쳐다보았을'로 대체하는 것이 다른 선지에 비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다.

11번.

[정답]

③: 윗글은 김침지의 감정을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인물의 감정을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다.

[정답]

①: '빠지깃빠지깃'과 같은 표현을 통해 청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소설의 생생함을 높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윗글은 주인공 김침지의 시점을 바탕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그 학교 문', '자기 집', '정거장

까지 끌어다주고', '길가 술집'등의 표현을 통해 등장인물의 동선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사십 전이 그렇게 끔찍해?', '젠장맛을 술'등의 표현을 통해 등장인물의 호탕한 성격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12번

[정답]

④: ㉠은 ㉡의 웃음에 '이 나쁜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라는 표현을 통해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아차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은 ㉡이 부른 일련 오십 전에 '그건 너무 많은데'라며 의심을 표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은 병으로 인해 집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인력거 끌기를 멈췄으나 ㉡의 재촉에 다시 인력거를 끌기 시작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에게 '너 또 붓다니, 벌써 우리 네 잔씩 먹었어, 돈이 사십 전이야.'라는 말을 통해 평소와는 다른 씩씩이에 경각심을 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소설 상 ㉠이 던진 돈을 ㉡이 줌고 이를 ㉡에게 다시 전달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13번.

[정답]

④: 김첨지가 아이에게 돈을 던지는 장면은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의 자본주의적 권위를 '치삼이'에게 부각하는 것 역시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김첨지가 본인보다 어린 학생에

게 굽신거리는 것은 둘의 관계 사이에 자본주의적 질서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족을 돌보는 것 대신 돈을 선택하여 일하는 김첨지의 모습, 또한 학생이 땀을 때 무거움을 느끼고 아내 생각에 잠시 멈췄지만 학생의 말을 듣고 다시 일하는 장면을 통해 김첨지가 자본주의 사회에 순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김첨지가 돈을 위해 일하고 그 돈을 던지는 장면을 통해 김첨지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역설적으로 홀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아이는 김첨지가 돈이 없는 줄 알고 주문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이가 김첨지의 자본주의적 신분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치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14번

[정답]

④: (가)에는 '괴로운 사람'이라는 청자가, (다)에는 '아이야'라는 청자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가)에는 (나)와 달리 '괴로운 사람'과 같이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는 (가)와 달리 화자 '나'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다)에는 (가)와 달리 '푸른', '흰'과 같이 색채어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1연부터 2연까지 2줄씩 전체적으로 대구가 나타나고, (다)는 '하이얀'을 보면 단어의 음절을 임의적으로 늘려 시에 리듬감을 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15번

[정답]

③: 포도를 따먹는 것과 극한에 서는 것은 위 보기와 (다) 시를 통해 알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①: 보기를 통해 (가) 시의 화자가 부르는 '괴로운 사람'은 시인 자신의 부끄러움이 투영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 화자는 샘플 때문에 밤을 말할 수 없고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보기와 연관 지으면 샘플이 화자를 반성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다)의 화자는 바라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아이에게 모시수건을 준비하라고 한다. 이를 보기와 연관 지으면 시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응원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화자가 지향하는 바다와 (다)의 화자가 바라는 손님은 독립을 상징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독립을 시에 녹여내어 독립운동을 응원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16번

[정답]

②: '나는지금(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을 통해 화자는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피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언어체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의 시가 최신키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귀가 있지만 그 귀로 나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자아의 모습에서 인간의 자기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자아가 나와 악수를 할 수 없는 것은 나와 내 자아 간에 갈등 양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가 거울 속 자아의 외모에 동질감을 느끼고 걱정 및 근심을 한다는 점에서 자아 간에 화해를 도모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17번

[정답]

①: 화자는 밤을 말할 수 없고 거리의 소음과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태에 '괴로운 사람'을 부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②: 해당 구절에 자포자기의 심정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거울 속이 고요한 것이지 화자의 현재 상황이 고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사물에 대해 긍정적 판단이 나타난 것은 맞지만 해당 구절 이전에 부정적 판단이 나타난 것은 아니며 판단의 전환이 나타난 것 역시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해당구절에 대상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한탄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18번

[정답]

④ 내가 바라던 손님이 타고 있던 흰 돛단배 역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흰 돛단배라고 했으므로 색채어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대상을 명확히 그려낸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다.

[오답]

①: (다) 시에 대상의 부채를 자연물에 비유한 구절은 없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다) 시에 '흰 돛단배가 밀려 오면'을 통해 긍정적 상황을 가정함을 알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부정적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즉 현재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화자는 손님을 기다리긴 하지만 바라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기대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다) 시에 청포도를 의성어를 통해 표현한 구절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로 적절하지 않다.

단지하프모의고사

[저자]

오르비 '인터넷 공부 친구' (lmin: 1101790)

모의고사를 발간하며...

안녕하세요. 단지모의고사를 집필한 오르비 인터넷 공부 친구입니다.

단지모의고사의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전자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얽힌 이야기를 하자면 수능이 끝나고 알바를 구하지 못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던 중에 모의고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되지만 즐겁고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문과 문제를 제가 썼기에 오르비에 검토하실 분을 모집했는데 예상외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겠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받은 따뜻함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국어를 가르치시는 고국양학님이 해설강의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시고, 제 부족한 지문과 문제를 과감하게 수정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단지모의고사를 발간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